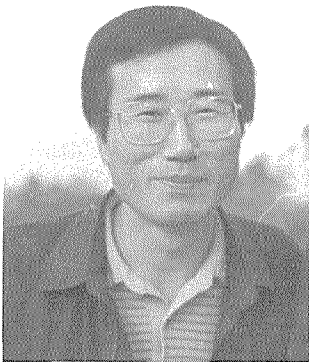


월동기 수급과 한강물



신 영 우
〈호남정유 수급부 차장〉

현재 프로판은 수요의 약 85%를 수입 공급하지만 돌이켜 보면 우리도 프로판을 수출했던 적이 있었다.

필자가 호남정유에 입사했던 '77년도까지만 해도 LPG는 국내 수요가 생산을 밀돌아 수출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태워 버려야만 공장가동이 가능했었으나 '79-'80년도부터 소득수준 향상으로 가정연료가 연탄에서 프로판으로 급격히 대체되고 영업용 택시에 부탄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80년대 초부터는 수입을 해야만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었다.

연간 LPG 수요 증가가 40%를 상회했던 '80년대 초, LPG 선박이 연안 수송을 본격적으로 담당하기 전 수도권 LPG 공급은 철도(RTC)가 담당했었다. 하루 최대 수송 가능량인 100~125톤(RTC 4~5량)이 당시 호남정유의 수도권 동절기의 일일 수요이었던 관계로 동절기에는 출근과 동시에 재고 및 RTC 현황을 파악하여 동자부에 보고하는 것이 주요 일과였다. 철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 같아 당시 수송용역을 맡았던 정유사 신입직원이 새벽 5시에 용산

역으로 나가 공장에서 막 도착한 RTC를 전량 수색이나 김포저유소에 연결 도착시켜야 하는데 철도 사정상 1량이라도 용산역에 떨어져 버리면 그 날은 서울시내 공급이 다 안되기 때문에 보통 낭패스런 일이 아니었다.

용산역에 홀로 처진 RTC 1량 때문에 함께 우고 웃던 당시 동자부 관계관을 지금도 업무상 가끔 만나게 되면 우리는 말없이 웃기만 한다.

당시 갓 결혼한 나의 신혼 살림살이로는 LPG 사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하루에 필요한 LPG(RTC 4-5량)를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시키기 위해서 부탁할 만한 곳에는 어디나 「나는 한 방울도 쓰지 않지만 서울시민들의 취사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는 긴박한 핑계를 대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상황이었다.

수급이란 수요와 공급의 합성어라고 생각되는데 이 중 공급은 생산, 수송, 저장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공급의 3박자가 잘 맞아야 비로소 안정적인 수급을 기할 수 있는데 이 3박자가 훌륭한 화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늦은 밤까지 그리고 남들이 쉬는 날에도 계획을 확인, 조정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생산에는 특성이 있다.

제품 수요에 딱 들어맞는 수율을 갖는 원유란 없기 때문에 수요와는 관계없이 일정범위 내에서 각 제품이 필연적으로 일정량씩 반드시 생산되는 것이 석유정제의 특성인 관계로 어떤 제품은 남아서 걱정, 어떤 제품은 부족하여 수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저계는 서울에 첫 눈이 내리고 바다가 몹시 사나웠다. 국내 수급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유조선 운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해상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출근과 동시에 우리는 기상협회가 전송하는 기상통보를 훑어 보고 사무실 눈 아래 펼쳐진 한강물의 모양새부터 살핀다. 한강을 거슬러 하얀 파도가 이는 날이면 반드시 서해안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선박

운항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의 강한 북서풍은 여름의 태풍보다 더 수급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무엇보다 동절기가 되면 저유시설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건설 당시는 도시의 외곽이었던 저유소가 세월이 지나면서 도심으로 바뀌어 이전을 해야 하고, 저유시설 확장이 가능한 기존 저유소도 확장사업을 추진하지만 민원과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 및 이와 관련한 인허가 문제로 이전 혹은 확장 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해 주는 정부의 실질적인 기능과 정책이 아쉬운 것이다.

우리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 수송, 저장이라는 3가지 요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추진하지만 한 회사의 안정적인 공급이 그 회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차원을 떠나 공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거리의 제약, 시설부족 및 기상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사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수급안정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유사의 수급을 담당하는 사람들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신뢰와 공조 체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지속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수급안정뿐만 아니라 업계간 중복투자를 피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의 저유소를 재배치하고 필요한 지역은 현대화된 대형 저유소를 공동건설, 공동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행히도 정부와 관련 업계가 공동투자하여 '92년 말에는 경인송유관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고, '95년 초가 되면 여천과 울산/온산에서 서울까지 2개의 장거리 송유관이 가동될 예정이므로 국내 석유제품 수급안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때가 되면 겨울이 와도 좀 편안한 백성, 가정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